

식민지 여성 작가의 글쓰기와 여성성의 표상 :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중심으로

서 승 희*

차 례

- | | |
|--|--|
| 1. 전시체제하 여성 작가의 글쓰기라
는 논제 | 3. 식민지적 젠더 구조의 통찰과 ‘누이’
의 재정위 : 지하련의 소설 |
| 2. 여성 지식인상의 재창조, 당위와
실제의 거리 : 임순득의 소설 | 4. 결론 : 임순득과 지하련 소설의 의
미 |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임순득과 지하련이 1940년대 초반 『국민문학』으로 대 표되는 주류 문단에 편입되지 않은 채 창작을 지속한 여성 작가들임에 주목하였다. 두 작가는 전시체제하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그리고 총 후부인이라는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여성상이 유포되던 시기에 이와는 변별되는 여성성을 창조했다. 임순득은 ‘여류’가 상품처럼 소비되는 문단 관행을 비판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했으며 성찰적 지식인으로서의 여성 상을 재창조해냈다. 그는 지식인의 책무를 반복하여 강조했으나 실천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간접화하는 서사 전략을 택했다. 한편 기

*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성 문단의 지지를 받으며 등단한 지하련은 일상의 문제에서 점차 시대성이 강하게 환기되는 지식인의 서사로 옮겨갔다. 그는 식민지 남성성의 곤경과 위기를 그려내는 가운데 누이의 시각을 통해 이들의 허위의식을 통찰하는 한편, 남성적 욕망으로 지배할 수 없는 여성상을 제시했다. 이와 같은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은 일본의 국가 담론과 식민지의 남성성, 그 어느 것으로도 완벽히 포섭되지 않는 여성성을 통해 식민지 여성 지성이 도달할 수 있었던 임계점을 보여준다.

주제어 : 임순득, 지하련, 여성성, 여성 지식인, 리얼리티, 서정, 식민지 남성성, 내면의 서사, 타자로서의 여성

1. 전시체제하 여성 작가의 글쓰기라는 논제

1940년대 초반 제국 일본이 전시체제로 돌입함에 따라 식민지 조선 여성은 국민으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미래의 황국 신민을 튼튼한 장병으로 길러 나라에 바치는 어머니로서의 역할, 전시의 가정생활을 이끌고 후방 활동에 힘쓰는 주부로서의 역할, 남성 노동력을 보충하여 생산 활동에 기여하는 생산자로서의 역할이 그것이다.¹⁾ 후방의 기초 단위인 가족의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여성 젠더에 집중되는 구조 속에서 '신여성'적인 생활양식이나 자기실현 욕망은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²⁾ 총후 부인은 이와 같은 의무와 금기가 결합하여 탄생한 역할 모델로서 조선 사회에 대대적으로 선전, 유포되며 여성들의 삶 속

1) 안태운, 『식민정치와 모성』, 파주:한국학술정보, 2006, 19쪽.

2) 권명아, 『총후 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전시 동원체제하 총후 부인 담론 연구』,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 권명아, 『총력전과 젠더 : 총동원 체제하 부인 담론과 『군국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8,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2004.

에 파고들어갔다. 국민화된 조선 여성의 신체와 감정 구조를 발명하고 재현해내는 것은 당대 문학의 몫이기도 했다. 일례로 『국민문학』 창간호에 수록된 정인택의 『청량리계외(淸涼里界隈)』는 애국반 활동을 통해 ‘성장’하는 아내의 모습을 남편-교사의 시선으로 기껍게 그려냈고, 신진 작가 김사영은 『성스러운 얼굴(聖顔)』에서 아들의 죽음을 승인하는 어머니를 ‘성모’로 격상시키는 등 국민문학 작가들은 새로운 여성성을 창작의 주된 소재로 활용했다.

여성 지식인들 역시 전쟁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는 글을 써 냈으나, 이들의 글쓰기는 남성 지식인의 그것과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드러냈다. 여성 지식인들은 “이광수나 채만식처럼 그렇게 쉽게, 남 말하듯이”³⁾ 아들을 전장으로 보내는 모성을 선전하지 않았고 여성을 가족 내부에 국한된 존재로 다루지도 않았다. 오히려 여성의 모성 보호와 공적 활동에 대한 기대가 여성 지식인의 논설 및 소설에서 드러나는 핵심 논리였다.⁴⁾ 특히 최정희가 남긴 일련의 소설들은 식민지 여성의 입장에서 파시즘이 어떻게 재/해석되고 수용되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⁵⁾ 최근까지 전시체제하 여성 작가의 글쓰기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이 문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협력의 내적 논리와 젠더정치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성의 동원 양상으로 연구가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다루어진 문제들도 있었다고 생각한다. 가령, 모성이나 생산성과 무관한 여성성을 다룬 서사들은 어떻게 평가될 수 있을까? 임

3)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소명출판, 2009, 167쪽.

4) 이선옥, 『여성 해방의 기대와 전쟁 동원의 논리』, 『친일 문학의 내적 논리』, 서울:역락, 2003, 266쪽.

5) 심진경, 『여성작가 친일소설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2003. ; 이상경, 『식민지에서 여성과 민족의 문제-일제 파시즘하의 최정희와 임순득』, 『실천문학』, 69, 실천문학사, 2003. ; 서영인, 『순응적 여성성과 국가주의-최정희 친일문학의 내적 동인 연구』, 『현대소설연구』, 25, 현대소설학회, 2005. ; 허윤, 『신체제기 최정희의 모성담론과 국가주의』, 『차세대 인문사회 연구』, 3,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07. 등.

순득(1915-?)과 지하련(1912-?)의 소설은 이와 같은 질문을 불러일으킨다.

근대 여성 작가 3세대로 분류되는 임순득과 지하련은⁶⁾ 1940년대 전반기에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또한 중산계급 출신으로 사회주의자인 오빠와 남편을 두는 등 여러 환경을 공유하지만⁷⁾ 문단 활동 양상이나 작품 스타일에 있어서는 상이한 특징을 드러낸다. 두 작가의 글쓰기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졌는데 임순득은 북한 문단에서 활동을 재개했고 지하련은 남편 임화를 따라 월북했다. 이 때문에 두 작가는 해금 이후, 그리고 각기 전집이 출간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임순득은 민족 해방과 여성 해방의 비전을 동시에 구현한 비평가이자 소설가로 고평되었고,⁸⁾ 지하련은 신여성의 주체성과 ‘암흑’의 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인의 윤리 감각을 그려낸 작가로서 주목받았다.⁹⁾ 한편 해방 이후 임순득의 소설은 북조선의 여성 현실을 민감하게 포착해낸 작품으로¹⁰⁾, 지하련의 소설 『도정』은 지식인의 자기비판과 재출발을 다룬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¹¹⁾

-
- 6) 이상경, 「1930년대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서울:소명출판, 2008, 34쪽.
- 7) 임순득과 지하련의 가계 및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소명출판, 2009. ; 서정자 편, 『지하련 전집』, 서울:푸른사상, 2004. 참조.
- 8) 서정자, 「최초의 여성문학평론가 임순득론-특히 그의 페미니즘 문학 비평을 중심으로」(『청과문학』, 제16집, 1996),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서울:푸른사상, 2001. ;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문학」,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 9) 박찬효, 「지하련의 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의 연애 양상과 여성성: 「가을」, 「산길」, 「결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 서정자, 「어두운 시대의 윤리 감각」, 『지하련 전집』, 서울:푸른사상, 2004. ; 서재원, 「지하련 소설의 전개 양상」,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2008. 등.
- 10) 김재용, 「북한의 여성문학」, 『한국문학연구』, 1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 이상경, 앞의 책. ; 서승희, 「국민화의 문법과 여성문학, 그 불/일치의 궤적-임순득 다시 읽기」,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 11) 박지영, 「혁명가를 바라보는 여성작가의 시선-지하련의 『도정』, 한무숙의 「허물

이밖에도 향후 다양한 연구가 가능하겠으나¹²⁾ 본 논문에서는 임순득과 지하련이 『국민문학』으로 대표되는 주류 문단에 편입되지 않은 창작자를 지속한 여성 작가들임에 주목하였다. 전시체제하 식민지라는 조건 속에서, 그리고 총부부인이나 군국의 어머니 등 스테레오타입으로서의 여성상이 유포되던 시기에 이들이 전개해 나간 여성의 서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밝혀보고자 하는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될 임순득의 소설은 「名付親(대모)」, 「秋の贈り物(가을의 선물)」, 「月夜の語り(달밤의 대화)」 등 3편으로 모두 일본어로 쓰였다. 따라서 과거 ‘친일’ 소설로 분류되기도 했으나,¹³⁾ 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국책과 거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었고 나아가 저항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논의들이 이루어졌다. 한편 최근에는 「名付親」을 후대에 번역,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국화 경향이 비판적으로 지적되거나¹⁴⁾, 「名付親」가 수록된 매체의 성격에 비추어 임순득의 글쓰기 전략이 재조명되는 등¹⁵⁾ 임순득 소설은 친일 대 민족주의라는 구도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석되는 추세이다.¹⁶⁾ 다만 여성 지식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 세 소설을 아우르는

어진 환상』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0, 반교어문학회, 2011. 류진희, 「월북 여성작가 지하련과 이선희의 해방직후」,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3. ;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지하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등.

12) 두 작가의 전기적 사실, 영향관계, 작품 목록과 관련하여 밝혀지지 않은 사항이 여전히 존재한다. 임순득의 경우, 북한 여성문학과 관련하여 진전된 논의가 필요하리라 본다.

13) 이선옥, 「평등의 유혹-여성 지식인과 친일의 내적 논리」, 『실천문학』, 67, 실천문학사, 2002.

14) 함충범, 이가형, 「일제말기 일본어문학의 재정립과 임순득의 (재)발견, 그리고 또 다시보기 : 「대모」(名付親, 1942)를 중심으로」, 『Trans-Humanities』, 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3.

15) 서승희, 앞의 논문 참조.

16) 임순득의 소설 데뷔작은 「일요일」(『조선문학』, 1937.2)이다. 이후 임순득은 비평과 수필만 발표하다가 「名付親」(『文化朝鮮』, 1942.10) 이후 일본어 소설을 2편 발표한다.

연구는 제출되지 않았다.¹⁷⁾ 그러므로 임순득이 그려낸 여성성의 문제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지하련은 이 시기에 총 6편의 소설을 썼다. 그런데 누이, 오빠, 오빠의 친구라는 삼각 구도를 전제로 하는 『체향초(滯鄕抄)』, 『종매(從妹)』, 『양(羊)』 등은, 아내, 아내의 친구, 남편의 삼각 구도를 전제로 하는 그의 소설 『결별(訣別)』, 『가을』, 『산(山)길』에 비해 논의가 소략할 뿐 아니라 여성성의 문제보다는 (남성)지식인의 윤리에 초점을 맞추어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당대 남성 작가들과 변별되는 지하련만의 문제의식을 짚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표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는 일본의 국가 담론과 식민지의 남성성, 그 어느 것으로도 완벽히 포섭 불가능했던 여성성의 문제, 그리고 식민지 여성 지성이 다다를 수 있었던 임계점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2. 여성 지식인상의 재창조, 당위와 실제의 거리 : 임순득의 소설

“부인은 예술 활동에 있어서 ‘작가’가 될 수 없이 영원히 ‘여류 작가’밖에 운명 지워지지 않을 것인가.” 임순득은 그의 첫 비평문인 『여류 작가의 지위』(1937)에서 이렇게 물었다.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작가와 여류 작가라는 호칭 사이의 거리인데, ‘여류 작가’라는 명명 속에 깃든 근대 시민사회의 젠더 분리 전략과 상품화 메커니즘을 임순득은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다. 가정 내 존재로 고착화된 여성이 사회적 존재 의의를 인정받는 것은 오직 “포근한 위무용”으로 활용될 때뿐이며, 저널리즘이 호출하는 ‘여류 작가’야말로 이를 대표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런데 비판은

17) 이 세 작품의 전반적 내용과 특징, 의미에 대해서는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소명출판, 2009, 174-187쪽.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여성을 ‘여류’로 타자화하는 주류(남성)문단의 관행도 문제지만, 여성 작가 스스로 이 관행에 편승하거나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임순득의 주장이다.

새로운 여성 소설에 대한 임순득의 생각은 등단작 『일요일』(1937)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설은 고뇌하는 남성 지식인과 그의 아내(연인) 혹은 누이라는 당대 전향 소설의 익숙한 인물 구도를 차용하고 있다. 전향자인 오빠의 생활엔 연민과 공감을, 투옥된 연인에겐 지지와 조력을 아끼지 않는 여성 주인공은 분명 낯설지 않은 캐릭터이다. 그러나 이 여성은 고유의 삶과 사유, 논평의 권한을 가진 존재로서 남성 지식인과 “대등한 인격으로서 께임이 아니라는 확신”을 피력한다. 바로 이 점에서 『일요일』은 여성 인물을 속악하거나 숭고한 존재로 재현하던 기존의 남성 서사와도, 연애나 결혼 생활의 에피소드를 다룬 여성 작가의 소설과도 변별되는 의미를 확보한다. 그러나 여류 작가가 아닌 여성 작가가 되겠다는 임순득의 목표는 그 이후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못했다. 이른바 전환기라 지칭되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상하는 생활”을 담은 문학을 하겠다는 그의 목표는 중단되었고, 선배 여성 작가들의 작품 속에서 전범을 찾아보고자 했던 그의 바람 또한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가 기대를 걸었던 강경애와 박화성은 침묵하고 있고, 그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모윤숙과 최정희의 활동이 두드러지는 것이 1940년을 전후한 시기 문단 상황이었다.

임순득은 2년여의 침묵 후 일본어 잡지 『文化朝鮮』의 지면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는 대동아문화 창달을 목표로 삼은 잡지로서 주된 독자층이 일본인 여행객과 이주자, 그밖에 일본어 해득이 가능한 조선인 등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¹⁸⁾ 임순득은 여타 작가들처럼 일본어 창작에 대한 입장이나 소회를 밝히지 않았으므로 어떤 계기로 이를 시작하게 됐는지

18) 문경연, 『『文化朝鮮』(前身 『觀光朝鮮』, 1939-1944), 식민지 경영과 잡지 미디어의 문화정치』, 『근대서지』, 8, 근대서지학회, 2013, 497쪽.

확언하기는 어렵다. 조선 최고의 지식인인 작가들에게도 하루아침에 일본어로 작품을 쓰라는 요구는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당시 국민문학이 협력의 진정성은 둘째 치고 일본어 글쓰기 실력을 기준으로 술한 다짐과 비판을 거듭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하물며 그 수가 절대적으로 적은 여성 작가들 중에서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이는 드물었다. 임순득이 작품을 수록한 『文化朝鮮』의 편집 후기만 보더라도 일본어로 글 쓰는 조선인 여성이 환영받던 분위기가 확인된다.¹⁹⁾ 임순득은 이 같은 저널리즘의 분위기를 이용하여 여성 작가로서의 입지점을 새롭게 다지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지배체제에 응답하는 방식이 아니라 종래 자신의 문제의식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임순득의 『名付親(대모)』²⁰⁾(1942)은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라는 제목 그대로 한 여성이 친구와 더불어 사촌 남동생의 아기 이름을 짓는 과정을 보여주는 소설이다. 창씨개명이 권고되던 시기에 조선식 이름을 짓는 서사임에 착안하여 이 소설은 일본이 식민지에 강요된 제도의 폭력성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와 같은 해석은 충분히 설득력을 지닌다.²¹⁾ 그러나 여기서 보다 주목하고자 하는 바는 『名付親』에서 그려내는 여성성의 문제이다.

『名付親』은 종래 일본 저널리즘에서 선호하던 눈요기로서의 원주민 여성상은 물론 군국 모성으로서의 여성상과도 변별되는 여성의 표상을

19) 『編輯後記』, 『文化朝鮮』 4-5, 1942.12, 96쪽. 편집 후기는 ‘여류 신진’ 임순득의 소설이 조선어 소설을 일본어로 번역한 것이 아니라 오리지널 ‘국어’ 창작임을 밝히고 있다.

20) 『대모』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어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소명출판, 2009.에 수록되었다.

21) 이상경은 이름짓기와 관련한 일본적 풍속과 천주교의 개념을 두루 설명하여 임순득이 염두에 두었을만한 사항을 밝히는 한편, 임순득이 일가의 창씨개명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서 일본식 이름을 쓰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또한 이 소설이 이름짓기와 관련한 여러 고민들을 보여줌으로써 이름이 지니는 상징성 및 해방의 열망을 강렬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해석한다. 이상경, 위의 책, 174-178쪽.

제시하고 있다. 이는 누군가의 연인이자 누이가 아닌, 자립적이고도 지성적인 한 인간으로서의 여성이다. 물론 사촌 남동생이 편지를 통해 간접적으로 등장하기는 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인공과 동생의 관계는 ‘안식처’나 ‘구원자’ 역할을 하는 남성 작가의 작품 속 누이 표상²²⁾과 차별성을 드러낸다. 동생의 불안한 내면은 누이에게 투사되어 충족되기는커녕 오히려 망각되거나 거리 두기, 혹은 객관적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게다가 동생의 부탁을 수행하는 과정 역시 동생을 위한 것으로 온전히 수렴되기보다 여성으로서 글을 쓴다는 것을 성찰하는 과정으로 그려진다. 이 소설의 대부분은 주인공과 그의 친구인 고려아의 대화로 채워지는데, 언뜻 보기에 이들은 상반된 성품과 문학관의 소유자이다. 주인공이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데 반해, 고려아는 섬세한 감수성과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다. 고심해서 지은 자기 소설의 여주인공 이름을 아기 이름으로 선택 빌려줄 만큼 고려아는 다정한 성품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러한 고려아를 향하여 주인공은 “여류 작가적인 모든 취미와 제스춰”를 그만 두라고 충고한다.

“그렇잖아. 파란 가을 하늘과 같은 생애라니 너무 웃기잖아. 스피노자를 그렇게 표현한 젊은 철학도의 말을 아름다운 시구라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너 자신이 소위 여류 작가들이 좋아하는 여자 주인공 그대로야. 과연 파란 가을 하늘과 같은 인간의 생애가 있을까? 그렇게 지상성이 없는……. 인간의 생애는 오히려 여름 하늘같잖아. 흐리기도 하고 개이기도 하고 뭉게뭉게 뭉게구름이 피어오르기도 하고 무거운 납처럼 가라앉은 하늘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복잡한 인간 세상에 살고 있잖아.”²³⁾

22) 정명중은 누이 표상이 가족 혈연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나 탈영토화되고 텍스트화되는 문화적 구성물이나 표상으로 기능한다는 전제 아래 김남천 소설의 누이 표상을 분석한다. 여기서 그는 남성 가부장들이 자신의 나약함과 잔인함을 아무런 충돌 없이 스펀지 또는 블랙홀처럼 흡수해버리는 기표 X로서 누이들을 호명한다고 보았다. 정명중, 『김남천 소설 속의 ‘누이’ 표상-‘소년 주인공 계열’ 소설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지상성이 없다’는 것은 앞서 문단의 선배 여성 작가들을 향해 임순득 자신이 지적했던 ‘여류’적인 속성이기도 하다. 그런데 소설의 전개를 보면 주인공은 고려아와 근본적인 대립 관계를 형성하진 않는다. 오히려 고려아의 감정에 이입하며 자기혐오를 느끼기도 하고, 충고하다가도 어느덧 아랑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있다. 고려아도 마찬가지로이다. 그녀는 친구의 지적을 수용하고 감사를 표명한다. “넌 내 친구잖아.”라는 말로 묶이는 두 사람의 연대는 여성의 내면에서 모순적인 형태로 공존하는 욕망과 감정, 주장에 대한 고찰을 보여준다.²⁴⁾ 이를 통해 임순득은 과거와 같이 ‘여류적인 것’을 비판하는 것을 넘어서 여류라는 프레임 속에 갇혀 있던 여성성을 보다 복합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 작가들이 그려야 할 ‘지상’의 삶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그려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는 분명 일종의 타협이긴 했으나 과거 문단에서 통용되던 여류적인 것과 현재 문단에서 요구되는 모성과 생산성을 넘어서는 확실한 길이기도 했다.²⁵⁾

『名付親』에서 선보인 여성 연대는 『秋の贈り物(가을의 선물)』(1942)과 『月夜の語り(달밤의 대화)』(1943)에서 변주되어 다시금 나타난다. 그러나 이 소설들에서는 식민도시 경성을 배경으로 삼았고 노동의 문제와 무관한 소재를 다뤘던 『名付親』에서와 달리 식민지의 농촌 현실이 개입되면서 ‘여성 지식인/작가로서 -을 해야만 한다’는 당위와 실제 사이의 거리가 더욱 크게 벌어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秋の贈り物』에서 주인공은 소설가인 친구를 향해 “동포의 소리”를 강조하고 “라오콘을 바라보는 눈으로 묘사하라”고 충고하는 등 『名付親』와 동일한 문학관을 피력한다. 그러나 정작 소설에서 재현되는 식민지 농촌의 풍경은 라오콘적인 고통이나 공포의 리얼리즘과는 거리가 멀다. 이 소설이 수록

23) 임순득, 『대모』,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소명출판, 2009, 254쪽.

24) 서승희, 앞의 논문, 396쪽.

25) 위의 논문, 399쪽.

된 『每新 寫眞旬報』는 “매일신보사에서 발행하고 총독부 문서과에서 감수하여 전 조선의 경찰서에 무료로 배포했던 잡지”²⁶⁾로 알려져 있다. 전쟁 선전과 홍보를 담당했던 매체였던 만큼 시국 비판이나 현실 부정이 강조된 콘텐츠는 수록 불가능했을 터이다. 그래서일까. 이 소설에는 조선인들의 노동과 가난이 담담하게 서술되어 있고 이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테리겐차’의 ‘죄상’도 그저 스쳐지나가는 상념으로 등장한다. 주인공이 실제로 만나는 동포가 어린 소년들에 한정되어 성인의 일상으로 진입하지 않는 것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이 소설의 중심 에피소드는 소년의 상처를 치료해준 대가로 아름다운 석류를 선물 받는다는 이야기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결말 부분에 이르러 갑자기 작가의 실제 목소리가 등장하며 이 소설은 메타픽션으로 전환된다. 임순득은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 고향이 있고 유년기는 그렇다 치고 그 소년 시대에 짝터 오르는 정신을 고 방정환 씨의 수많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보낸 그대.”를 호명한다. 방정환의 이야기를 공유하는 이 ‘그대’들은 명백히 조선인 성인 독자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을 부름으로써 소년들의 가난은 먼 유년기 시절에 겪었을법한 보편적이고도 애뜻한 추억으로 재배치된다. 그리고 이들과 더불어 가을의 환희를 공유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달밤에 함께 모여 환향가(還鄉歌)를 부르며 춤추고 싶다는 소망이 차례로 강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이 소설은 이제는 성인이 돼 버린 자들의 공통 감각과 정서로 마무리되는데, 이것이 조선인의 비참한 현재를 역설적으로 환기하는가, 아니면 봉합하는가는 독자의 입장과 관점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다. 이 소설에서도 임순득은 여성 지식인의 시각으로 ‘지상성’의 문제를 제기하였으나 구체화하지 않는 선에서 소설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26) 서유리, 『『매신 사진순보』, 조선에 전쟁을 홍보하다』, 『근대서지』, 10, 근대서지학회, 2014, 372쪽.

『月夜の語り(달밤의 대화)』(1943)에서도 지식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보유한 여성 주인공이 등장한다. 주인공 순희는 가난한 소년 순동의 취직을 주선할 겸 경성의 약제사 친구를 찾아가기로 한다. 순동에게 집을 들러 기차역으로 향하는 주인공은 가을밤의 분위기에 한껏 취하는데, 이와 같은 정서는 반복적으로 간섭 받고 중단되는 양상을 보인다. 주인공이 달빛을 가리킬 때 순동은 생활을 이야기하고, 오랜만의 여행에서 오는 설렘은 민중의 슬픔으로 잠식당한다. 이를 통해 평화롭고 목가적인 시골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 그리고 민중들의 생활은 폭풍 그 자체라는 사실이 드러나게 된다.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내용 구상에 영향을 미쳤으리라 생각되는 조선 시인의 시가 서사 안에 기입되고 있다는 것이다.

“풀 베를렌느의 달밤에도 나는 북동리와 같이 새끼를 꼬고 있다.’ 이 런 시를 읊은 시인의 감성도 생각나서 순희는 가슴이 저러왔다.”²⁷⁾

임순득이 인용한 시는 서정주의 시 『엽서-동리에게』(『비판』, 1938. 8)²⁸⁾이다. 풀 베를렌느로 대표되는 박래품 취향이나 교양에서 벗어나 북동리와 더불어 새끼를 꼬는 현실로의 진입을 그려낸 이 시는, 서구적인 교양과 결별하고 동양으로의 귀환을 주장하던 당대 담론 장의 분위기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각종 이미지의 활용에 있어서도 참조할 바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임순득은 식민지 지식인의 사명감과 민중 현실

27) 임순득, 『달밤의 대화』,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소명출판, 2009, 274쪽.

28) 머리를 상고로 깎고 나니/ 어느詩人과도 낮이 다르다//
 광광한 니빨로 우서보니 하늘이 좋다/ 손톱이 龜甲처럼 두터워가는것이 기쁘구나//
 솟작새같은 계집이이야기는, 벗아/ 인제 죽거든 저승에나 하자./모가지가 가는 다란 李太白이처럼/우리는 어찌서 兩班이어야 했드냐//
 포울·베르레-느의 달밤이라도/福童이와 가치 나는 새끼를 끈다./巴蜀의 우름소리가 그래도 들리거든/부끄러운 귀를 꺾어버리마// -서정주, 『엽서-東里에게』전문

의 처참함을 병치하되 이를 서사적으로 풀어간 것이 아니라 달빛과 흰 들국화, 조선인들의 흰옷과 붉은 흙 등 개개의 장면을 이미지화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지식인의 사명감이 지닌 무거움과 민중 현실이 지닌 처참함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었다. 나아가 이 소설의 결말은 시적 합일과 동일성의 순간을 묘사하고자 하는 듯하다. 달밤의 서정적 분위기 속에서 순동에게 자신의 옷을 덧입혀주고자 하는 여성 지식인의 형상은 신분과 계급의 차이를 떠난 '대화'의 가능성을 가늠케 한다. 그러나 동시에 순동이 짊어진 지게 때문에 주인공의 손길은 순동의 몸에 완벽하게 가 닿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임순득이 강조점을 찍고자 하는 바는 무엇이였을까? 달밤이었기에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감정의 교류일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합치될 수 없는, 관념과 현실의 거리일까. 『月夜の語り』 역시 『秋の贈り物』과 마찬가지로 문면에 드러난 것과 더불어 드러나지 않은(혹은 드러내지 못한) 것을 함께 생각케 하는 소설이다.

이처럼 임순득의 일본어 소설은 (조선)민족의 서사로도, (일본)국민의 서사로도 온전히 귀속되지 않는 애매모호성을 지니고 있다. 그의 소설은 전쟁에 동참할 것을 직접적으로 피력하지는 않았지만, 전시(戰時) 여행 잡지와 경찰서에 배부되는 잡지의 문학 코너에 무리 없이 수록되었다. 아마도 국민문학의 창작 요건에는 부합하지 않으나 시국에 위배되지도 않는 가벼운 읽을거리로서 간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일찍이 조선의 상업적 저널리즘이 만들어낸 여류적인 것을 비판하며 문학 활동을 시작한 그였으나, 그는 결국 전시체제하 저널리즘이 허용하는 범주 아래서 작가적 명맥을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임순득은 여성 지식인을 통해 지상성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정작 그려낼 수 있었던 것은 식민지라는 지상의 리얼리티가 아니라 연민과 동정으로 가득 찬 서정성의 세계였다. 이 점에서 그의 서사는 총력전의 시대 속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3. 식민지적 젠더 구조의 통찰과 ‘누이’의 재정위 : 지하련의 소설

“사실 내게는 이렇다는 포부라고 할 게 없습니다. 혹 평소 바라든 바가 있었다면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저 충실히 혹은 적고 조용하게 살아가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²⁹⁾ 지하련은 『문장』 추천제를 통해 등단한 후 이와 같이 소회를 밝혔다. 신인으로서의 겸손함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 글에서 그는 “내게는 별 것이 없어, 무릇 색채가 풍부한 찬란한, 생생한, ‘문학’”은 결코 하지 못할 것 같다고도 쓰고 있다. 실제로 그는 자기의 생활 안에서 소재를 구하며 ‘작은’ 서사들을 써 나갔고 임화의 부인이자 문단의 승인을 받은 신인으로서³⁰⁾ 안정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갔다. 조선어 문학 지면을 제공했던 몇 안 되는 잡지 중 하나였던 『춘추』에서도 그는 신인특집란에 이름을 올렸고, 『춘추』의 문학란에 일본어 텍스트가 병치되는 시점에도 계속하여 조선어 소설을 써서 수록했다.

1940년에서 1942년에 걸쳐 발표된 『결별』, 『가을』, 『산길』은 지식인 남편과의 결혼 생활, 중산층의 일상, 신여성의 우정과 사랑 등 지하련의 삶과 일상을 연상케 하는 바가 적지 않다. 남편, 아내, 아내의 친구라는 인물 구도를 바탕으로 결혼 제도가 묶어 놓은 남녀 관계의 의미를 질문하는 이 소설들은 대중소설의 문법에 부합할만한 갈등의 총집합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별』은 아내의 친구로부터 구애받는 남편의 시점에서, 『가을』은 친구의 남편을 통해 자기 결혼 생활의 진실을 깨닫는 아내의 시점에서, 『산길』은 친구와 남편의 연애 사실을 알게 된 아내의 시점에서 전개되는 소설이다. 그러나 이들의 갈등을 부각시켜 강렬하게 사건

29) 지하련, 『인사』, 서정자 편, 『지하련 전집』, 서울:푸른사상, 238쪽. 이하 이 책에서 인용시 ‘전집’으로 표기하겠음.

30) 지하련의 등단 이후 백철과 정인택 등 남성 작가들의 호의적인 비평이 잇따랐다. 정영진, 『지하련의 삶과 문학』, 위의 책, 318-320쪽.

화하기보다는 밀도 깊은 심리 드라마로 그려냈다는 점에 지하련만의 독특한 세계가 놓인다. 그의 소설 속 여성 인물들은 결혼 제도 바깥에서 출현하는 자극 속에서 진실을 깨닫지만 이에 행동으로 반응하지는 않는다. 그들이 자각한 남편의 위선이나 허위의식, 절대 고독 등은 제도로 탈주케 하는 동력이 아니라 희망이나 기대 없이 현 상태를 유지하는 냉소주의로 수렴되는 것이다. “평화해야만 하는 부부생활이란 이런 데로부터 시작되는 것인가?”(『산길』)라고 되새기는 여성의 모습은 그녀가 결코 조선의 ‘노라’를 택하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남성중심적인 가족 제도 안에 있되 그 정신의 독자성을 유지하는 이들 여성은 순응과 불온이라는 양가적 의미를 동시에 구현하는 인물이라 정리할 수 있겠다.

주목할만한 점은 지하련 자신이 전한 등단 인사와 달리 그는 사적인 세계와 애정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의식을 전개해나갔다는 사실이다. 『결별』, 『가을』, 『산길』과 달리 오빠, 오빠의 친구, 누이라는 인물 구도를 바탕으로 한 『체향초』, 『종매』, 『양』은 내면의 파노라마에 시대성이 깊게 개입되는 양상을 드러낸다. 바로 ‘혁신’의 문제인데 당대에 이는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라 일본인으로서의 재탄생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문학의 혁신을 주도한 『국민문학』은 창간호 권두언을 통해 “칙칙했던 혹은 주저주저했던 지식인의 표정을 버리고 신념에 가득차고 의욕에 불타는 지식인”³¹⁾상으로 거듭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를 적극적으로 서사해나갔다. 예컨대 창간호에 수록된 이석훈의 『고요한 폭풍』은 일본 국민 되기라는 과업 앞에서 드러나는 망설임, 나약함, 소극성을 적나라하게 그려낸 소설로서 식민지 국민문학의 출범을 알렸다.³²⁾ 그런데 반드시 국민문학으로 귀속되는 일본어 텍스트에서만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하련의 『체향초』, 『종매』, 『양』에서 중심을

31) 『卷頭言 朝鮮文壇の革新』, 『國民文學』, 1941.11, 3쪽.

32) 이에 대해서는 서승희, 『일제 말기 소설과 자기의 정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참조.

이루는 것도 혁신이란 시대의 메시지를 외면할 수 없었던 남성 지식인의 내면 문제이다.

다만 남성 작가들의 소설이 전시체제하의 현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간 데 반해 지하련의 소설은 거의 완벽하게 이를 삭제하고 있다. 이는 내면의 행보에 집중하는 특유의 창작 방법 때문이기도 하지만, 배경 설정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지하련은 식민 권력이 미처 도달하지 못한 두메나 산속³³⁾을 소설의 무대로 삼은 후, 이곳에 칩거하는 남성-오빠들이 육체노동에 골몰하거나 하릴없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조명하고 있다. 이런 오빠에게도 동질감을 불러일으키는 남성 동지들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대사회적 자아가 소실된 모습이거나(『체향초』) 폐병환자로서 육체적 소실의 길을 걷고 있고(『종매』) 고독과 고립의 길을 고집하고 있다(『양』). 그런데 이들을 향한 오빠들의 반응에는 다소 특수한 구석이 있다. “천사 같은 사람”(『체향초』)이라 표현한다든가 “얼결에 놓여진 손을 잡어”(『종매』) 보기도 하고 “얼굴이 몹시 아름답다”(『양』)고 생각하는 등 때로는 호모섹슈얼한 분위기마저 자아내는 오빠의 감정은 연민이나 공감의 차원을 넘어선다. 동시에 오빠는 자신의 고독을 상대방에서 발견하는 순간에는 “지옥”(『양』)을 운위하는 등 극단적 반응을 보인다. 이 남성들은 대부분 하나의 독자적 캐릭터로서 서사에 관여한다기보다 이렇지도 저렇지도 못하며 지독한 자기애와 자기혐오 사이를 오가는 식민지 남성성의 음화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런데 오빠는 왜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일까? 이는 앞서 언급했던 혁신의 세계, 힘과 행동의 세계라는 반대향을 의식한 결과이다.

역시 태일 군 같은 사람이 살아 있는 사람일지도 몰라. (중략) “자랑”을 가졌으니까. 생명과, 육체와, 또 훌륭한 “사나히”라는 자랑을 가졌으니까. (중략) 그는 저와 상관되는 일체의 것을 자기 의지 아래 두고

33) 지하련 소설 속의 공간성에 관한 선행 연구로는 서정자, 『어두운 시대와 윤리 감각 - 지하련』, 전집, 272-274쪽. 참조.

싫은 야심을 가졌으면서도, 그것을 위해 조금도 비열하지도 않고, 아무 것과도 배타하지 않는, 이를테면 풍족한 성격일 뿐 아니라, 이러한 성격이란 본시 “남성”의 세계이니까.³⁴⁾

석히는 종일 책에 몰두할 때도 있었다. 그러나 결국 허무하기 짝이 없었다. 이러할 때마다, 그는 무엇이고 “산 문제”에 한번 부딪쳐 보구 싶은-이렇게 하기 위해선 살인이라도 감당할 것 같은-고약한, 그러나 이상한 저력으로 육박해 오는 야릇한 “의욕” 때문에 머리속은 다시금 설레기 시작하였다.³⁵⁾

인용문에서 오빠가 표현하는 ‘살아 있는’ 것에 대한 욕망은 건강성과 생명력을 상징하는 남성 캐릭터 - 오빠의 친구로부터 촉발된다. “연구실”(학술), “사관학교”(군사), “경성”(자본)이라는 키워드와 결부되는 오빠 친구의 미래는 제국 일본이 확약한 고도국방국가와 대동아공영권 건설과 무관한 것일 수 없다. 문제는 이 현실 세계로 나아가지 않는 한 “인류를 대표(representative)하고 재현(representation), 창조”³⁶⁾하는 남성 주체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데서 비롯된다. 지하련은 이를 여러 우화를 통해 표현하는데, 우선 『종매』에 등장하는 쫓고 쫓기는 장끼들의 격렬한 싸움을 예로 들 수 있다. 싸움이 종료된 후, 승자는 호기 있게 비상하지만 패자는 마치 죽은 것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 『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범에게 목을 물린 채 죽어가는 양의 모습이 부각된다. 결국 오빠의 현재는 지배적 남성성에 패하여 비(非)남성, 비(非)주체의 자리로 밀려난 식민지 남성의 총체적인 곤경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체향초』, 『종매』, 『양』은 이 곤경만을 부각하여 보여줄 뿐, 무기력에서 행동으로, 의심에서 확신으로 나아가는 남성 작가들의 소설과 달리

34) 『체향초』, 전집, 136쪽.

35) 『종매』, 전집, 188쪽.

36) 정희진, 『편재하는 남성성, 편재하는 남성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서울:자음과 모음, 2011, 20-21쪽.

어떤 종류의 변화도 암시하지 않은 채 서사를 종료해 버린다. 『체향초』와 『종매』의 결말에서 등장하는 끔찍하고 불길한 메뚜기(大蟊)와 『양』의 결말에서 등장하는 “완전히 썩은” 술방울의 비유는 이 소설들이 식민지 남성의 파국을 알리는 묵시록으로 쓰였음을 보여준다. 물론 이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완벽한 절망을 최소한의 보루로 삼고자 했던 당대 남성 지식인의 윤리적 마지노선을 가늠케도 한다. 그런데 지하련은 이를 강조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다. 그의 소설에서 진정 돋보이는 것은 남성성의 파노라마를 꿰뚫어보고 있는 여성적 시선이기 때문이다.

오빠와 달리 누이는 결코 힘을 동경하지도 않고, 힘이 없음에서 오는 위기의식을 피력하지도 않는다. 남성 주체들을 응시하는 불길한 눈으로 기능하는 그녀들은 남성적 논리로 해독되지 않는 고유성을 지닌 존재들이다. 『체향초』, 『종매』, 『양』은 이 때문에 빚어지는 남성들의 불쾌함을 매우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한다.

다음 순간 잠잠고 있는 누이를 발견하자 그는 이상하게 언짢은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의 그 천진하던 원이는 어테를 가고, 극히 침울한, 어데까지 무표정한 얼굴 전체가 무슨 크다란 질곡을 겪는 것처럼 차가웠다.³⁷⁾

청년은 뭘 더 말하려고 들지는 않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극히 맹렬한 형세로 원의 어깨를 안았다. 결코 애정의 표시가 아닌 더 많이 미움에 가까운 심히 조폭한 그 고집을 원이 폐발뚱 뿌리쳤을 때, 석히는 방금 청년이 여자에게 따귀를 맞인 것이라고 착각하며 망연히 서 있었다.³⁸⁾

성재는 별로 얼굴에 찬 기운을 느끼며, 그 굵테기가 몹시 패인 소나무에 기대인 채, 잠깐 정인이의 눈을 직히고 있었다. 그러나 그 다정한 눈은 그에겐 생소한 것이었고 타인의 것이었다.³⁹⁾

37) 『종매』, 전집, 186쪽.

38) 『종매』, 전집, 194쪽.

『체향초』의 오빠는 누이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되 어디까지나 그녀가 어리고 무지한 누이의 표상 속에서 공전하기를 바란다. 따라서 그는 응당 그와 같은 세계를 모르리라 생각한 누이에게서 어떤 조소와 방관의 흔적을 발견하는 순간 분노를 표출한다. 이는 자기류의 남성에게 친근감을 표하는 것과 현저히 다른 반응이다. 한편 『종매』의 오빠는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젊은 여성의 이미지에 자신의 누이를 가두고 있다. 그는 폐병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누이의 연락을 받고 절에 가는 동안, 일순간에 신세를 망친 여성의 이미지를 머릿속에서 떨쳐 버리지 못한다. 그러나 막상 누이의 친절이 애정관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자, 그 다음엔 뒤늦게 나타난 자기 친구와의 애정관계를 타진한다. 그 어느 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누이는 그에게 최종적으로 생소하고 흥하며 귀찮은 존재로 자리매김된다. 오빠의 친구들 역시 노골적으로 누이의 인정과 존경을 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이 누이의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는가를 끊임없이 탐문하나, 누이는 결코 그들이 원하는 반응을 돌려주지 않는다. 결국 오빠의 친구들은 폭력성을 드러내거나(『종매』) 심한 두통과 역기(『양』)를 느끼며 누이에 대한 혐오를 감추지 못한다.

이와 같이 지하련의 소설은 ‘누이’라는 “적은 창조물”(『체향초』)이 남성들에게 불가해한 존재로 전화해가는 과정을 그려내고 있다. 남성성의 위기를 느끼는 남성들에게 이 세계가 진정 지옥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성이라는 타자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누이는 칩거하는 오빠의 사정을 이해하면서도 “거인도 죽고 천사도 가고 없는 소란한 시장의 아들로 태어나 한 올에도 능히 인색한-그러면서도 상기 고향을 탄데 두어 더욱 몰꼴이 사나운 형상”(『체향초』)을 지니고 있다고 냉철하게 논평한다. 또한 누이는 생활 세계에서 양품점을 운영하는 남성을 배우자로 선택할지 언정 칩거하는 남성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가 되기를 거부한다(『양』). 나를 사랑하는 여성조차도 나를 위해 헌신하지 않는 세계에서 식민지 남

39) 『양』, 전집, 215쪽.

성성의 마지막 남은 자기 정당성은 교란되고 의문에 붙여진다. 한편 남성적 패권을 쟁취한 남성들 역시도 비남성화된 남성들로만은 충족되지 않는 지배와 과시의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지하련 소설 속의 누이는 이 부류의 남성에 대해서 일말의 이해는커녕 “저는 조금도 무섭지가 않았습시다”(『종매』)라는 말로 선망 없음을 분명히 표현한다.

지하련의 소설은 전시체제하 식민지 지식인의 내면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다루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국민문학이 혁신으로 나아가는 내면의 운동성에, 이태준의 소설이 혁신으로 나아갈 수 없는 내면의 정지 상태에 초점을 맞춘 데 반해, 지하련은 이 두 개의 내면 혹은 두 가지 남성성이 공통적으로 여성성이라는 타자를 필요로 했음을 서술하고 있다. 따라서 그의 소설은 단순한 내면성의 서사가 아니라 일본의 국민화 프로젝트가 식민지에서 구축한 젠더 질서와 그 복합적 작동 원리를 그려낸 작품으로서 재독해될 필요가 있다.

4. 결론 : 임순득과 지하련 소설의 의미

최근 한국문학계에서는 일제 말기 문학의 협력 양상과 내적 논리에 대한 연구 성과가 다방면으로 제출되었다. 그러나 협력의 내적 논리를 치밀하게 검토했던 것과 달리 비협력에 속하는 텍스트들에 대해서는 그 논리를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민족주의적 독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듯하다. 그러나 과연 민족주의라는 선형적 기준으로 임순득과 지하련이라는 여성 작가의 소설이 지닌 복합적 의미망을 모두 해명할 수 있을까.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출발점으로 삼아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을 분석해 보았다.

임순득과 지하련은 세대적, 계층적, 교양적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문학 활동의 양상은 매우 상이했던 작가들이다. 임순득은 명백히 선전을

목적으로 하는 잡지들에 창작을 수록했고, 지하련은 조선어 잡지에 글을 실었다. 이 때문에 임순득이 막간의 휴식을 위해 읽힐만한 분위기와 형식으로 자기 소설을 장식했다면, 지하련은 자신의 일상 속에서 목도한 남성 지식인들의 내면성을 심도 깊게 파고들어가는 소설을 썼다. 따라서 시국성을 희미하게나마 담지하고 있는 임순득이 서정성을 발휘하는 데 반해, 지하련 소설은 시국성을 직접 드러내는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전 시체제하에 쓰인 묵시록과 같은 성격을 지닌다.

이처럼 스타일이 달랐던 두 여성 작가의 공통점은 여성성에 대한 일관된 관심이다. 임순득의 소설은 남성 못지않은 지식인이자 교양인으로서의 여성상을 구축하고 지식인 작가로서의 소명, 다름아닌 시대와 현실의 리얼리티를 그려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여성을 누구의 동생, 누구의 아내가 아닌 독자적인 존재로서 바로세우고자 했던 것은 그의 오래된 바람이었다. 그리하여 임순득은 자기 소설의 여성을 연애나 결혼과 거의 무관한 존재로서 등장시켰고 지적인 활동에만 몰두하게끔 하고 있다. 그러나 임순득은 지식인으로서의 당위만 강조할 뿐 이 여성 지식인이 그려낼 수 있는 식민지의 리얼리티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었다. 일본어로 일본어 해독 가능자를 위한 소설을 쓰고 있던 그로서는 이것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수 있다. 한편 지하련은 당대 국민문학과 조선어 창작의 공통적 키워드였던 '혁신'의 문제를 여성의 시각으로 풀어냈다. 임순득과 달리 지하련은 오히려 '누이'라는 기존 남성소설 속의 전형적 캐릭터를 의도적으로 차용했고, 그녀로 하여금 식민지 남성 지식인의 욕망 구조를 꿰뚫어보게 함으로써 지배 불가능한 존재로서의 여성상을 새롭게 창조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종합지 『춘추』에 각각 마지막 소설 『달밤의 대화』와 『양』을 실은 후 1943년 중반부터 절필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때는 일본의 전쟁이 패전 일색으로 전개되면서 시국이 경색해가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들이 써내던 선택적이고도 암시적인 서사들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았

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그 전까지 임순득과 지하련이 어떤 전략 아래 자신의 글쓰기를 전개해나갔음을 반증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요컨대 임순득과 지하련의 소설은 전시체제하 식민지에서 여성 지식인이 어떻게 표상될 수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이다. 민족주의와 제국주의라는 거대 담론으로 결코 완벽히 해명되지 않는, 오히려 그 거대 담론을 내파하는 파열선으로서 이들의 소설은 기억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國民文學』, 『文章』, 『文化朝鮮』, 『朝鮮文學』, 『春秋』 등

2. 논문 및 저서

권명아, 「총후 부인, 신여성, 그리고 스파이 - 전시 동원체제하 총후 부인 담론 연구」, 『상허학보』, 12, 상허학회, 2004, 251-282쪽.

권명아, 「총력전과 젠더 : 총동원 체제하 부인 담론과 『군국의 어머니』를 중심으로」, 『성평등연구』, 8, 가톨릭대학교 성평등연구소, 2004, 7-24쪽.

김재용, 「북한의 여성문학」, 『한국문학연구』, 19,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1999, 151-168쪽.

류진희, 「월북 여성작가 지하련과 이선희의 해방직후」, 『상허학보』, 38, 상허학회, 2013, 279-308쪽.

문경연, 「『文化朝鮮』(前身 『觀光朝鮮』, 1939-1944), 식민지 경영과 잡지 미디어의 문화정치」, 『근대서지』, 8, 근대서지학회, 2013, 496-504쪽.

박지영, 「혁명가를 바라보는 여성작가의 시선-지하련의 『도정』, 한무숙의 『허물어진 환상』을 중심으로」, 『반교어문연구』, 30, 반교어문학회, 2011, 175-204쪽.

박찬효, 「지하련의 작품에 나타난 신여성의 연애 양상과 여성성 : 「가을」, 「산길」, 「결별」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25,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08, 31-59쪽.

손유경, 「해방기 진보의 개념과 감각-지하련을 중심으로」, 『현대문학의 연구』, 49, 한국문학연구학회, 2013, 147-174쪽.

서승희, 「일제 말기 소설과 ‘자기’의 정치」,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53,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11, 185-206쪽.
- 서승희, 「국민화의 문법과 여성문학, 그 불/일치의 궤적-임순득 다시 읽기」, 『반교어문연구』, 38, 반교어문학회, 2014, 379-421쪽.
- 서유리, 「『매신 사진순보』, 조선에 전쟁을 홍보하다」, 『근대서지』, 10, 근대서지학회, 2014, 368-403쪽.
- 서영인, 「순응적 여성성과 국가주의-최정희 친일문학의 내적 동인 연구」, 『현대소설연구』, 25, 현대소설학회, 2005, 213-233쪽.
- 서정자, 『한국여성소설과 비평』, 서울:푸른사상, 2001, 188-212쪽.
- 서정자 편, 『지하련 전집』, 서울:푸른사상, 2004, 41-377쪽.
- 서재원, 「지하련 소설의 전개 양상」, 『국제어문』, 44, 국제어문학회, 2008, 329-354쪽.
- 심진경, 「여성작가 친일소설 연구」, 『배달말』, 32, 배달말학회, 2003, 83-106쪽.
- 안태운, 『식민정치와 모성』, 파주:한국학술정보, 2006, 19쪽.
- 이상경, 「임순득의 소설 『대모』와 일제 말기의 여성문학」, 『여성문학연구』, 8,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31-384쪽.
- 이상경, 「식민지에서 여성과 민족의 문제-일제 파시즘하의 최정희와 임순득」, 『실천문학』, 69, 실천문학사, 2003, 54-82쪽.
- 이상경, 「1930년대 신여성과 여성작가의 계보 연구」, 『한국 여성문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서울:소명출판, 2008, 34쪽.
- 이상경, 『임순득, 대안적 여성 주체를 향하여』, 서울:소명출판, 2009, 15-431쪽.
- 이선옥, 「평등의 유혹-여성 지식인과 친일의 내적 논리」, 『실천문학』, 67, 실천문학사, 2002, 254-269쪽.
- 이선옥, 「여성 해방의 기대와 전쟁 동원의 논리」, 『친일 문학의 내적 논리』, 서울:역락, 2003, 266쪽.
- 정명중, 「김남천 소설 속의 ‘누이’ 표상-‘소년 주인공 계열’ 소설을 중심

으로, 『현대문학이론연구』, 41, 현대문학이론학회, 2010, 163-189쪽.

정희진, 「편재하는 남성성, 편재하는 남성성」, 권김현영 외, 『남성성과 젠더』, 서울:자음과 모음, 2011, 20-21쪽.

함충범, 이가형, 「일제말기 일본어문학의 재정립과 임순득의 (재)발견, 그리고 또 다시보기 : 「대모」(名付親, 1942)를 중심으로」, 『Trans-Humanities』, 6,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인문과학원, 2013, 115-146쪽.

허윤, 「신체제기 최정희의 모성담론과 국가주의」, 『차세대 인문사회 연구』, 3, 동서대학교 일본연구센터, 2007, 431-450쪽.

<Abstract>

Writing of Female Writers in the Colonial Era
and Representation of Femininity
: Focusing on the Novels of Im Sun-deuk and Ji
Ha-Ryun

Seo, Seung-hee

This paper is focused on Im Sun-deuk and Ji Ha-Ryun as female writers, who continued their creative writing without joining the mainstream literary circle represented by 『National Literature』 in the early 1940s.

The two writers created femininity discriminated from stereotyped femininity in the colonial era on a war footing. Im Sun-deuk started her literary activity criticizing the practice of the literary world that defined ‘woman’ and consumed as a commodity. But she also retained life as a writer under the category of femininity, which was limitedly allowed by journalism on a war footing.

Therefore, she had to adopt brightness, beauty and lyricism as narrative strategies rather than darkness putting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reality. Nevertheless, Im Sun-deuk’s novels consistent display introspection on writing of female intellectuals.

On the contrary, Ji Ha-ryun, who made her debut receiving support from the existing literary world, shifted her focus gradually to the narrative of intellectuals that strongly aroused the trend of the times from everyday issues. She looked into false consciousness of males

from the perspective of sisters by describing the difficulty and crisis of masculinity in the colonial era and presented femininity that could be ruled by masculine desire.

These novels of Im Sun-deuk and Ji Ha-Ryun show a critical point that women's intelligence in the colonial era could reach, through femininity, which perfectly belongs neither to Japanese national discourse nor masculinity in the colonial era.

Key Words : Im Sun-deuk, Ji Ha-Ryun, Femininity, Female
Intellectuals, Reality, Lyricism, Masculinity in the
Colonial Era, Inner Narrative, Woman as the Other

■ 논문접수 : 2016년 3월 10일
■ 심사완료 : 2016년 4월 6일
■ 게재확정 : 2016년 4월 21일

